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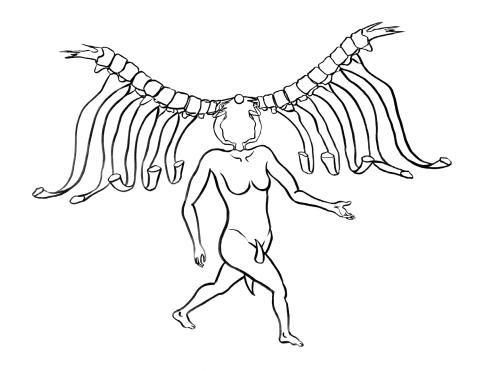
\*나는 날개를 단 채 죽을 테고, 실용적인 발톱을 길러 살아남으리라.

私は翼をつけたまま死に、実用的な爪を伸ばして生き延びよう。 I'll die with wings, I'll live on with practical claws.



<sup>\*</sup> 검은 노래, 『나머지 』,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최성은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21, p.87 『残り』, ヴィスワヴァ・シンボルスカ 『The Rest 』, Wislawa Szymborska





## Homo Ales

날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은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네발로 땅을 기던 한 동물의 시선은 직립 보행을 하게 된 후에도 줄곧 하늘을 향했다. 5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후고페 동굴 벽화'에는 여러 무리의 사람, 네 발의 동물, 배, 물고기 등과 함께 날개 달린 인간의 형상이 여럿 새겨져 있다. 나는 수천 년전의 누군가가 어두운 동굴에서 벽화를 새기고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본다. 그는 무엇을 소망했고 갈구했을까. 단단한 암벽에 아로새길 만큼 중요한 메세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보존되어 온 정보를 토대로 그의 비전을 상상해 보고자 한다. 그가 본 장면을 나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이끈다.

## Homo Ales

空を飛びたいという人間の欲望はどれほど古いものなのだろうか。四足で地面を歩いていた動物の視線は、直立歩行になった後もずっと空を向いていた。5000年前のものと推定されるフゴッペ洞窟'には、複数の群れの人、四足の動物、船、魚などと一緒に、翼のある人間の姿がいくつも刻まれている。私は何千年も前の誰かが暗い洞窟で壁画を刻んでいる場面を思い浮かべる。彼女は何を望み、何を求めていたのだろうか。硬い岩壁に刻むほど重要なメッセージは何だったのだろうか。私はその長い時間の間に保存されてきた情報をもとに、彼女のビジョンを想像してみる。彼女が見た光景を私も見たいという思いが私を導いている。

How ancient is the human desire to fly? A quadrupedal animal's gaze remained fixed on the sky long after it gained the ability to walk upright. Fugoppe Cave mural\*, believed to be 5,000 years old, depicts several winged human figures alongside groups of people, quadrupeds, boats, fish, and more. I picture someone thousands of years ago carving a mural in a dark cave. what did she hope for, what did she long for, and what message was important enough to carve into the solid rock? I try to imagine her vision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has been preserved over time. I'm driven by the desire to see what she saw.

<sup>\*</sup> 홋카이도 요이치에 있는 후고페 동굴의 암벽화는 1950년 해수욕을 하러 바다에 온 중학생에게 우연히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그것이 조몬 시대 말기의 유물로 확인되면서 1953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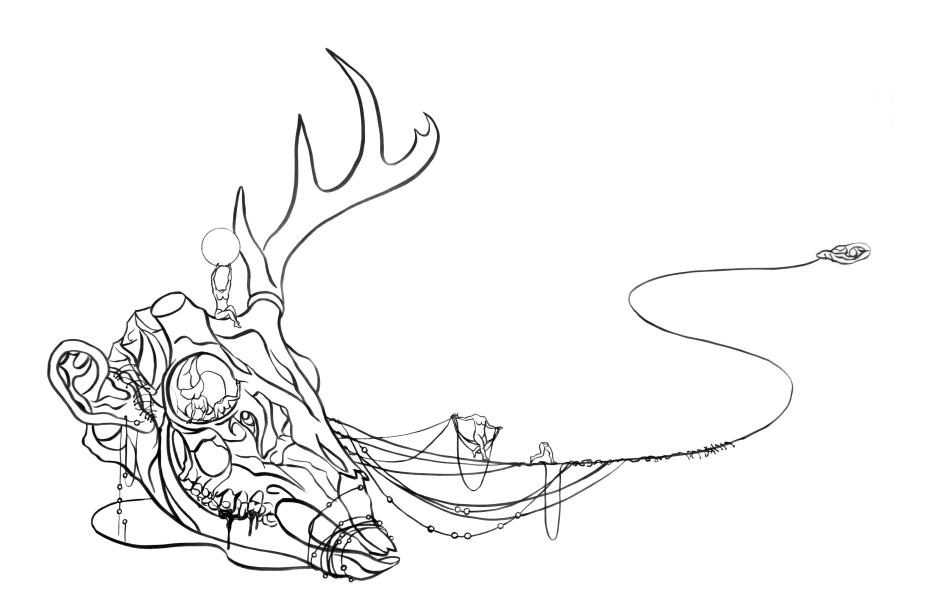
<sup>\*</sup> 北海道余市町にあるフゴッペ洞窟岩面刻画は1950年、海水浴に海に来た中学生に偶然発見された。 調査の結果、それが縄文時代末期の遺物と確認され、1953年国宝に指定された。

The Hugoppe Cave rock engravings in Yoichi Town, Hokkaido, were accidentally discovered in 1950 by a junior high school student who came to the beach for swimming. Their age was confirmed to be relics of the late Jōmon period, and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s in 1953.









## Drawing in Tenjinyama Vol.1

Published by Kim soyoung

Published on May 27,2023



さっぽろ天神山アートスタジオ

© 2023 Kim Soyoung